

‘휴진 대란’ 없었지만... 곳곳 환자들 불편·불안 호소

의사 집단휴진 광주·전남 표징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한 ‘18일 전면휴진’에 광주·전남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이 동내의원 의사들까지 가세했지만 우려됐던 ‘휴진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예약환자들의 경우 애써 잡은 진료예약이 밀렸고 일부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발길을 돌려 문을 연 병원을 찾는 등 크고 작은 고충을 겪었다.

이날 오전 광주일보 취재진이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의 로비에서 만난 지역민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환자들은 사전에 문자로 ‘외래진료가 정상 진행된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이날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면휴진에 나서 일부 진료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일부 환자들은 혹시나 ‘담당교수가 이날 휴진을 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전남대병원 이식혈관외과를 찾은 김정자(76)씨는 “다행히 정상진료 한다는 문자를 받았다”면서 “그래도 혹시 몰라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에서 전남대병원에 온 김순자(여·85)씨도 “백내장 수술 이후 눈이 잘 안보여 처방전을 받으러 왔는데 다른 때보다 대기 시간도 길지 않았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필수진료과인 응급실과 투석실 등을 찾는 환자들도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되는 진료에 안도했다.

하지만 일부 진료를 멈춘 비 필수 진료과 앞은 텅 비어 있었다. 간호사 1-2명만이 텅 빈 대기실을

전남대·조선대병원 사전 문자 통보

필수 진료과 평소처럼 운영 안도

문 닫은 동네병원에 환자 헛걸음

“안내문도 없이 문 닫나” 불만도

오가지 바꿨다.

병원 측의 이날 외래진료 연기를 사전에 환자들에게 문자 통보를 해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병원을 찾은 고령의 환자들은 진료를 받지 못하고 발길을 되돌려야만 했다.

이날 2개 진료과에 예약이 돼 있었지만 한 개 진료과가 문을 닫아 발길을 돌리는 환자도 있었다.

새벽 5시에 장흥에서 직접 운전해 병원을 찾은 심모(여·63)씨는 “오늘 심장센터와 이비인후과를 예약했지만 이비인후과 교수가 휴진에 들어가 심장 질환 검사만 받아야 한다”면서 “하루에 다 진료를 보기위해 같은 날로 잡았지만 이번 휴진으로 이비인후과진료를 위해 아픈 몸을 끌고 병원을 다시 와야 하니 불편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일부 환자들은 전남대·조선대 병원이 19일부터 정상 운영한다는 소식을 받으면서도 의정갈등으로 장기화로 인해 무기한 휴진 등 진료중단 사태에 들어가지 않길 불안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조선대 병원에서 만난 송기중(60)씨는 “최근 누나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진료 예약을 잡기 어려워 어쩔 줄 모르겠다”며 “아직까지 큰 불편은 없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결국 환자들만 피해를 입

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해 간 절제술을 받은 오태욱(78)씨도 이날 담당교수가 정상 회진했지만 “의료 파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 입원환자로서 매우 불안하다”면서 “아픈 사람들 입장에서 믿을 게 의사뿐이다. 하루빨리 정부와 의료계가 해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지역 동네병원을 찾은 환자들도 불편을 겪었다.

광주시 북구의 한 내과를 찾은 허미순(여·58)씨는 “혈압약과 당뇨약을 다 복용해 처방을 받으러 왔는데 문이 닫혔다”면서 “안내문도 없이 문을 닫으면 환자들은 어찌라는 말이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리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김모(70)씨도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집으로 발길을 되돌려야만 했다.

김씨는 “대학병원이 아니라 동네 병원까지 파업하는 줄 몰랐다”면서 “오늘 하루만 쉬는 거면 다행이지만 계속 쉬면 어떡하나”고 푸념했다.

일부 동네 병원에서는 ‘원장님 개인사정으로 쉽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여놨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원장님이 아파서 쉽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여 빈축을 샀다.

이 병원을 찾은 환자는 “의협 휴진 때문에 문을 닫는걸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혹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일부러 꾀병 핑계를 대는 것 아니냐”고 “이 병원에 오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강행한 18일 광주시 동구의 한 의원 앞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늘어나는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만든다

숨방망이 처벌 지적에 손 보기로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32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안에 합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을 이르게 하는 범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신설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을 이르게 하는 행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의 2개의 소유형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가 정한다.

이에 양형위원회는 각 범죄의 법정형을 최대 징역 3년과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경찰접수 기준 2010년에 69건이었던 동물학대범죄가 2022년에 1237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사건의 증가, 각계의 양형기준 신설요

청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늘고 사회적 인식도 달라졌지만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가벼운 편이어서 ‘숨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형 기준은 재판에서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조하는 일종의 지침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나 판결하려면 별도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이날 위원회는 지하철·공영장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피보호·피감독자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무안 ‘유기농 명인’ 이? ...폐기물 무단매립 수사

전남도가 선정한 무안군의 ‘유기농 명인’이 건설 폐기물 등을 무단 매립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무안군은 지난달 9일 경찰에 무안군의 한 농장주 A씨에 대해 폐기물처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줄 것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남도가 선정한 유기농발작물 농장 명

인이다. 무안군의 자체 조사 결과 A씨는 자기 농지에 있던 건물 한 채를 철거하고 나온 건설폐기물 170여t을 폐기물 업체를 통해 처리하지 않고 자기 농장 땅에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7월 썩은 농작물 등 폐기물 100여t을 자기 농장 땅에 매립했다가 폐기물처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인근 주민들은 썩은 농작물에서 흘러나온 새까만 침출수가 바다까지 그대로 흘러들어갔고, 인근 어장에서 낚지, 계집이를 하던 어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무안경찰은 무안군에서 기초조사 자료를 보내주는 대로 A씨를 정식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아내 살해 남편 가중처벌...자녀 살해 친모 감형

광주고법서 항소심 잇따라 열려

배우자와 자녀를 숨지게한 혐의로 법정에서 선이들에 대한 항소심이 같은 날 잇따라 열렸다.

18일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항소심 4건에 대한 선고가 진행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35년간 동고동락한 한 배우자를 살해한 50대 남편 A씨는 가중처벌됐고, 생후 2일된 자녀를 살해한 친모 B(37)씨는 감형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7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곡동 자택에서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하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에서 공업사를 운영하던 A씨 부부는 최근 1억 7000만원 가량의 빚을 져 경제문제로 자주 다투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말다툼하던 아내가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자녀 셋을 낳고 양육한 아내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자녀들도 어머니를

잃어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고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갓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B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17년 2월 출산 하루 만에 산부인과 병원에서 퇴원한 후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신 사실을 모른 채 남자친구와 헤어진 B씨는 임신 사실을 숨기고 홀로 아이를 낳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영아살해죄가 폐지되기 전 범행했지만, 양육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감경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C(72)씨와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12년이 선고된 D(35)씨에 대해서는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